

종합

민주당 광주 남구 보선 장병완 공천 배경

심야 난상토론 “黨 기여도 보단 능력”

“광주 눈높이 맞춰야”... 재정통 영입 결론

민주당이 무려 네 차례나 심야에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는 등 난상토론 끝에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을 공천했다.

10여명이 넘는 입지자들이 난립한 가운데 장 전 장관을 남구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한 배경은 무엇보다도 남구 주민과 광주시민의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정세균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은 남

구 보궐선거 후보 선정과 관련, “남구를 넘어 광주시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한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초부터 호남 최초의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이자 ‘재정통’으로 알려진 장병완 전 장관을 남구 보궐선거 후보로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 전 장관이 민주당 전문위원을 지낸 데다 공직 시절 광주·전남지역 예산과 인맥을 적극 챙기고 지역의 재야 그룹과 꾸준히 소통해왔다는 점은 민주당 공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병완 전 장관을 공천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정동채 전 의원, 지병문 전 의원, 임내현 변호사, 이윤정 지역위원장, 고재유 전 광주시장, 이민원 광주대 교수, 정기남 사회여론조사연구소장, 김철근 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등 10여명이 넘는 입지자들이 난립했기 때문이다.

전직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입지자들은 공천에 민주당 기여도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

장한 반면 정치 신인들은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후보를 공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여기에 일부 입지자들은 정적적 인연을 바탕으로 중앙당과 국회 의원회관을 날라리며 끊임없이 당 지도부 인사들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만 무려 세 차례나 심야 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되는 등 광주시민의 눈높이와 당 기여도 등 공천 기준을 둘러싸고 난상토론이 거듭됐으며 각종 ‘공천설’이 난무하는 등 대혼전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 기여도보다는 광주와 남구 발전을 이끌 역량과 남구 주민과 광주시민의 눈높이 등을 감안, 장 전 장관을 공천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민주당이 장병완 전 장관을 전략공천함에 따라 기존의 입지자들의 반발에 따른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남구 보궐선거 구도는 상당한 혼전이 예상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설

출범초부터 인사 후폭풍 휩싸인 ‘장만채 호’

지난 1일 교육개혁을 기치로 출범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임기 벽두부터 인사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인사를 지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는가 하면 일선 교육장에게 일괄 보직 사퇴를 요구해 교육현장이 들쭉거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부임과 동시에 교육국장과 초·중등과장의 대기발령을 지시했다가 “인사 절차를 잘 몰랐다. 9월 인사 때 하겠다”며 곧바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드·정실 인사 논란도 일고 있다. 장 교육감은 일부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순천대 총장 시절 함께 근무했거나 고교 동문 등을 발탁하기도 했다.

더욱이 장 교육감은 지난 7일 산하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기관장에게 9일까지 일괄 보직사퇴서를 요구해 일선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올 3월 1일자 인사로 초임 발령된데다 1년 미만 근무자도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무리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일선 교육에 몸담아온 교육장들이 사상 초유의 집단 사퇴요구에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한국교총이 이례적으로 장 교육감의 인사행위 전면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겠는가.

물론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면적 과제다. 교육계 비리 척결과 공교육 강화를 공약한 진보 출신 교육감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장의 절반 이상을 공모제로 선출하겠다는 발상 역시 신선한 아이디어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인사 혁신도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 밀어붙이듯 무리하게 인사는 교육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호타이어 ‘2개 노조’ 회사 회생 걱정된다

경쟁으로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금호타이어가 또다른 노조의 등장으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강경과 조합원들이 선거를 통해 현 집행부를 탄핵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행부와 회사 측이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새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노-노 갈등’은 물론 노사간의 대립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부터 3일간 실시된 이번 선거는 지난 5월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서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치른 것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와 회사 측은 ‘탄핵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들어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투표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회생을 위한 비상처방인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다. 지

난 4월 장기간에 걸친 노사간의 갈등으로 법정관리의 위기까지 내몰렸으나 가스로 타협안을 마련해 겨우 ‘숨통’이 트인 상태다. 채권단의 자금 지원으로 회사와 280여 협력업체들이 사실상 ‘연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갈길 바쁜 금호타이어가 노-노 갈등으로 인해 기업 회생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갈등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보다는 강경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는 노조 내부의 문제까지 관여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회사가 회생단계에 있어서는 상생에서 노노 갈등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노간, 노사간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 이전해야”

무안 시민사회단체 촉구

광주공항의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달라는 전남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추진위와 무안사랑포럼, 무안군변영회 등 무안지역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무안공항에서 집회를 갖고 광주공항의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전남 도민과 광주 시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골칫거리를 주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으로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의 공동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추진위 박일상 대표는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을 보여줘야 하며 무안공항이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 광주·전남의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도 이날 오전 22개 시군과 민선5기 첫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종득 목포시장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하는데 대해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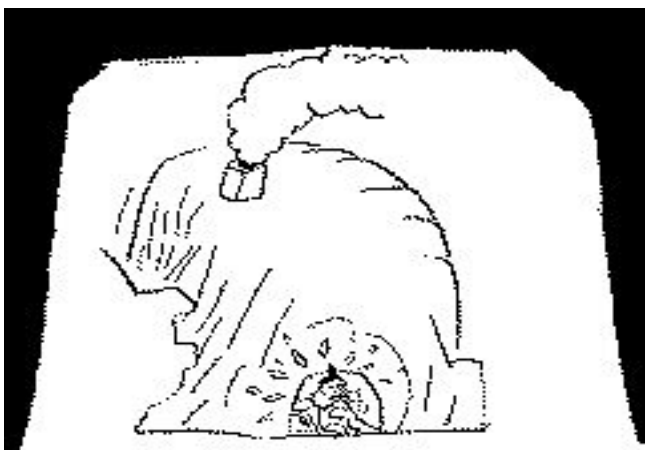
/정필수기자 buny@kwangju.co.kr /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추진위와 무안사랑포럼, 무안군변영회 등 무안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무안공항에서 집회를 갖고 광주공항의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빛의만평

- 김중두



전국이 한증막 됐다

금리 0.25% P 전격 인상

16개월 동결 마감... 추가인상 시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이는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의 신호탄으로, 연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종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빚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에서 2.25%로 인상했다. 다만,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자금으로 쓰이는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는 현행 1.25%를 유지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08년 8월(0.25%포인트) 이

후 처음으로, 16개월간 이뤄진 기준금리의 역대 최장 동결 행진이 마침표를 찍었다. 금통위는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에서 3.25%포인트 내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의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기준금리는 경제성장률과 향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특히 물가 상승압력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김 총재의 발언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F A X 227-0118)	2200-692	2200-511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2200-679	2200-54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2200-692	2200-511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2200-691	2200-541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2200-672	2200-541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11		2200-541
경영지원국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F A X 227-9500)	
다자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訃告

長興後人 高京柱 大夫人 全州李氏 喪期 喪事 告

에서 2010년 7월 8일 오후 11시 30분에 별세 하시기에 살가 알려드립니다.

빈 3일 2010년 7월 11일 (일) 14시 30분

장례식장: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2층 2호

주최: 장남 高京柱, 장녀 高京淑, 장남 高京赫, 장녀 高京英, 장남 高京龍, 장녀 高京美, 장남 高京龍, 장녀 高京美

주최: 장남 高京柱, 장녀 高京淑, 장남 高京赫, 장녀 高京英, 장남 高京龍, 장녀 高京美, 장남 高京龍, 장녀 高京美

先考 高京柱 公 諱 京柱 字 君柱 號 松石 公 於 丙申年 歲次 庚申 七月 八日 申時 終老 享壽 八十二 歲 諱 公 於 丙申年 歲次 庚申 七月 八日 申時 終老 享壽 八十二 歲

先夫人 高京淑 氏 諱 京淑 字 淑淑 號 松石 氏 公 於 丙申年 歲次 庚申 七月 八日 申時 終老 享壽 八十二 歲 諱 公 於 丙申年 歲次 庚申 七月 八日 申時 終老 享壽 八十二 歲

先考 高京柱 公 諱 京柱 字 君柱 號 松石 公 於 丙申年 歲次 庚申 七月 八日 申時 終老 享壽 八十二 歲 諱 公 於 丙申年 歲次 庚申 七月 八日 申時 終老 享壽 八十二 歲

先夫人 高京淑 氏 諱 京淑 字 淑淑 號 松石 氏 公 於 丙申年 歲次 庚申 七月 八日 申時 終老 享壽 八十二 歲 諱 公 於 丙申年 歲次 庚申 七月 八日 申時 終老 享壽 八十二 歲

先考 高京柱 公 諱 京柱 字 君柱 號 松石 公 於 丙申年 歲次 庚申 七月 八日 申時 終老 享壽 八十二 歲 諱 公 於 丙申年 歲次 庚申 七月 八日 申時 終老 享壽 八十二 歲

先夫人 高京淑 氏 諱 京淑 字 淑淑 號 松石 氏 公 於 丙申年 歲次 庚申 七月 八日 申時 終老 享壽 八十二 歲 諱 公 於 丙申年 歲次 庚申 七月 八日 申時 終老 享壽 八十二 歲